극장가 '리메이크' 바람

외국 작품 원작, K-정서에 맞게 재구성
'히든페이스'·'청설' 등 관객 호평 속 순항
검증된 작품 흥행 승산… '독창성' 우려도

최근 극장가에 외국 작품을 원작으로 한 한국 리메이크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된 작품을 뼈대로 해 실패 리스크가 작은 만큼, 코로나19 이후 요동치는 영화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개봉한 조선호 감독의 로맨스물 '청설'은 동명의 대만 작품(2009)을 리메이크한 영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20대 청년 용준(홍경 분)이 수영장에서 마주친 여름(노윤서)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작품은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토대로 한 CGV 골든에그지수에서 97%를 기록하며 호평 받고 있다. 입소문 효과로 개봉 첫째 주말보다 둘째 주말 관객 수가 증가해 누적 관객 수 7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일 극장에 걸린 김대우 감독의 에로티시즘 스릴러 '히든페이스'는 같은 제목의 콜롬비아 영화(2014)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지휘자 성진(송승헌)과 약혼녀 수연(조여정), 그의 후배 미주(박지현) 등 세 남녀의 얽히고설킨 욕망을 담았다.

이 영화 역시 CGV 골든에그지수 92%를 기록하고 개봉 사흘 만에 누적 관객 수 15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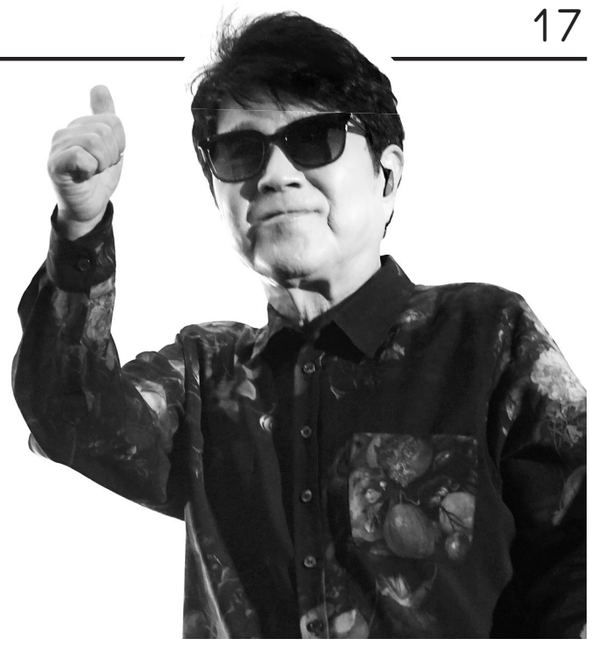
앞서 6월에는 미국 영화 '터커 & 데일 Vs 이블'(2010)을 리메이크한 남동협 감독의 코미디물 '핸섬가이즈'가 177만여 명을 동원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스웨덴 영화 '콕핏'(2012)을 각색한 '파일럿'은 471만여 명을 모아 여름 극장가 최고 흥행작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정가네 목장', '먼 훗날 우리' 등 다양한 리메이크작이 관객과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제작사들이 잇따라 리메이크작을 내놓는 데는 잘 만들어진 원작을 우리 정서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내세운 신작보다 흥행 면에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어떤 이야기를 관객이 좋아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흥행에 성공한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개봉한 영화 중 상당수가 해외 영화를 리메이크하거나 웹툰과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참신하고 날카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한다"면서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다 좋은 신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묻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가왕'은 현재진행형

조용필 콘서트 30곡 열창…떼창에 엄지척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 줄 수가 없나 /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가왕'(歌王) 조용필〈사진〉이 히트곡 '모나리자'의 후렴을 열창하자 장내에서는 한바탕 축제가 펼쳐졌다. 공연장을 채운 '오빠부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췄고, 이를 지켜보는 조용필 역시 몸을 앞뒤로 살짝살짝 흔들며 박자를 탔다.

가왕 특유의 쩌렁한 보컬은 데뷔 56년 차에도 음 하나를 허투루 흘리지 않을 정도로 정갈했다. 그의 밴드 위대한탄생의 육중한 사운드는 하드 록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바로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조용필의 정규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에서다.

조용필은 이 자리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부터 '바운스'(Bounce)와 신보 타이틀곡 '그래도 돼'까지 30곡에 육박하는 노래를 흐트러짐 없는 라이브로 들려줬다. 록, 국악, 팝, 트로트 등 다채로운 장르를 오가는 모습은 시대 흐름과 발맞추며 걸어온 음악 외길을 압축한 듯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쉼 없이 소화하는 콘서트는 어지간한 젊은 후배 가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객석 곳곳에선 "역시 가왕", "성량이 대단하다"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이날 공연은 KSPO돔이 암전되고 곧이어 위대한탄생과 조용필이 무대에 등장하며 시작됐다. 객석의 누군가가 '조용필' 이름 석 자를 연호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가왕을 찾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빨간 재킷에 트레이드 마크 같은 선글라스 차림으로 나타난 조용필은 빠른 비트와 에너지가 돋보이는 '아시아의 불꽃'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자존심', '물망초', '나는 너 좋아', '그대를 사랑해'까지 다섯 곡을 쉬지 않고 불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조용필은 이날 특히 팬들과의 교감에 공을 들였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밖의 여자', '남겨진 자의 고독', '기다리는 아픔', '길리만자로의 표범' 등 옛 히트곡들도 세트리스트에 포함해 팬들을 기쁘게 했다.

조용필이 히트곡 '단발머리'를 부르며 객석을 향해 "다 같이!"라며 떼창을 유도하자, 팬들은 일사불란하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라고 따라 불렀다.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 44년이 흘렀어도 '오빠부대'는 '그 소녀'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다. 가왕은 흡족한 듯 "좋아요!"라고 화답했다.

관객의 손 하나하나에 들린 '땡큐 조용필', '오빠!' 피켓 가운데에선 '용필이 형!'이라고 적힌 문구도 적지 않게 보였다.

조용필은 마지막 정규앨범으로 공언한 20집에 대해 "스무 번째로 (정규앨범은) 아쉽게도 끝났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연합뉴스

'오징어게임2' 성탄 시즌 공개는 글로벌 흥행 노림수

미국·유럽 등 가장 대목으로 꼽혀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 신작을 내놓을 때 꼭 피해야 하는 날짜로 12월 26일이 꼽힌다. 바로 넷플릭스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 공개일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12월 26일에 공개될까. 통상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 시청자 수요를 고려해 추석 시즌 공개를 선호해왔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의 경우 2021년 9월 17일에 공개됐다. 그해 추석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18~22일까지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몰아보기용 콘텐츠로 선보인 셈이다.

하정우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역시 2022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9일에 첫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오징어 게임 2'가 12월 말에 공개되는 것은 이 시리즈가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청자를 끌어모을 기대작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2월 26일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 등 서구권 전역에서 가장 대목으로 꼽히는 시기다. 서구권 직장인 대부분은 이때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할리우드는 물론 소매 업계에서도 이 시즌에 주목한다.

넷플릭스의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벨라 바자리아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오징어게임'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1은 한국의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내달 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팬들을 위한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같은 달 13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오징어게임 2' 공개 기념 한밤의 달리기 경기가 열린다. 배우 이정재(기훈 역), 이병헌(프론트맨)이 참가자를 만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